

대한민국 비평문학의 깊이를 더하다

높인 김환태문학제 성료... 문학정신 계승·발전의 장 기대
묘소 참배·문학비 탐방·콘서트·시낭송의 시간 등 다채

제11회 높인 김환태 문학제가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문학사상사가 주최, 높인문학회가 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문인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9일 무주높인문화관 영상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무주군 이경진 부군수를 비롯한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전선자 회장, 전북문인협회 류희옥 회장, 서울대 방민호 교수, 전북대 임명진 교수, 김성향 시인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제30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시상식, 시낭송, 문학콘서트에 함께 했다.

기념식에서 전선자 회장은 "해마다 더 뜻깊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높인의 고향에서 가을 풍취를 더한 이 자리가 우리나라 비평문학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부군수는 "높인 김환태 문학제가 걸 어온 지난 10여년의 여정은 기울어 가는 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다스 생소했던 비

평문학을 대중 가운데로 이끈 시간이었다"라며 "이상주의비평을 추구하며 사회와 정치, 사상,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비평문학의 길을 내신 김환태 선생의 문학 혼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제30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시상식에서는 문학연구자로서의 치밀함과 비평가로서의 균형감각으로 "전북 지역 문학 비평 사론"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은 최명표 문학평론가가 수상했다.

김환태평론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최명표 평론가는 다수의 저작을 통해 문학의 지역성을 공간 개념에 묶어두지 않고 시대성에 연결 지어 비평적 태도와 관점으로 승화시켰다"라며 "특히 전북지역 문학비평사론의 실증적 방법과 통합적인 비평태도를 높이 샀다"라고 밝혔다.

또 "이 책에 수록된 '김환태 비평의 낭만주의적 성격'이라는 평문이 가지는 폭과 깊이가 김환태평론문학상과의 성격과도 이어진

다"고 덧붙였다.

최명표 문학평론가는 "수상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준다는 말을 실감한다"라며 "김환태의 이름을 달고 수여되는 상인 만큼 그것을 지고 갈 의지를 다지면서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일제 강점기 김환태의 비평적 글쓰기를 지탱해준 원동력은 무주였다"라며 "김환태의 정서적 기반과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북 지역문학비평사론의 성과가 맞닿은 듯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제30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자 최명표 문학평론가를 비롯한 서울대 방민호 교수, 전북대 임명진 교수가 함께 하는 문학콘서트도 진행돼 호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은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김환태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문학비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높인 김환태 문학제는 무주출신이자 한국 비평문학의 선구자인 김환태선생(1909~1944)의 문학을 기리고, 무주문화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무주군에는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김환태문학관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8일 국회본관 귀빈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에서 남원 춘향제가 '명품우수축제'로 선정됐다.

'광한춘몽, 사랑에 빠지다'

남원춘향제,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 선정

지난 8일 국회본관 귀빈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에서 남원 춘향제가 '명품우수축제'로, 이화주 남원시장이 '명품축제 리더십'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로 88회를 맞은 춘향제는 우리나라 전통축제의 진수를 이어, 전통과 현대,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 점, 안전하고 질서있는 축제 운영이 돋보여 명품우수축제에 선정됐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으로 남원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화주 남원시장은 춘향제가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돼 '명품축제 리더십' 부문에 선정됐다.

한류문화산업진흥원과 도전한국인운동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적인 지역축제와 명품축제 조성에 기여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을 살린 성공적인 우수 지역 축제를 격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수원화성문화제, 강진 청지축제, 장흥물축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보령머드축제 등이 전국적인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춘향제를 비롯해, 광양매화축제, 부산 불꽃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이 선정됐다.

특히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는 축제시상위원회, 축제(업), 주한 외국인 선정, 파워블로그기자협회,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품우수축제, 국내 50선 축제, 국내 100선 축제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겠다"면서 "춘향제가 지속·발전하도록 앞으로도 남원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88회 춘향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광한춘몽(廣寒春夢) 사랑에 빠지다'란 주제로 80여편의 각종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 꿈같은 봄날의 축제로 개최된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 시상식'에서 김제교육문화회관 작문이 국립한글박물관상을 받았다.

김제교육문화회관, '한글 손 편지 공모전'서 한글박물관상 수상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2019년 제5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 시상식에서 김제교육문화회관 독서프로그램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이 국립한글박물관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동 주최, 전국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그 결과 146개 도서관에

서 3,75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고, 그중 김제교육문화회관 대표로 참여한 학생 중 한 명이 수상했다.

공모전 참여는 김제교육문화회관 여름독서교실과 연계돼 이뤄졌다. 독서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마다 독서교실 지정도서를 읽고 책 속 인물에게 편지를 썼고, 이번에 수상한 김산초등학교 6학년 공다는 학생도 지정도서

'초정리 편지'를 읽으며 편지를 썼다.

공다는 학생이 쓴 편지를 비롯한 총 27편의 공모전 당선작품들은 2020년 4월경, 김제교육문화회관 도서관주간에 회관 1층 로비에 1주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는 누구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4월 도서관주간, 9월 독서의 달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 작품전시회 개최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 사장 이명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익산 W미술관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예·미술분과 연합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문화예술을 즐기는 공예, 미술 분야 동호회 회원들이 올 한 해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캘리그래피, 서양화, 뜨개수세미 등의 작품들을 완성해 마련됐다.

특히 공예, 미술 분야 4개 동호회가 참여하

여 약 6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해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준 이사장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호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림 기자

마이산 석담

연인의 길

단영제 아경

진안고원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새롭게 변신한 마이산으로 GoGo여행~

NAVER | 진안군 | 마이산

사양제

진안홍삼스파

산악초타운